

## 국가기록관리위원회와 국가기록원은 법률개정안을 즉시 공개하고 소통해야 한다

국가기록관리위원회(위원장 곽건홍)는 오늘(6월 26일) 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, 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(안)’ 과 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(안)’ 등을 심의한다고 국가기록원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.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8일 재구성된 제4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첫 회의다.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지난 5월 21일 논평(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새로운 역할을 기대한다)을 통해 제47회 회의가 국가기록관리 혁신의 역사에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.

이번 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밝힌 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(안)’ 과 ‘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(안)’ 은 모두 국가기록관리혁신의 중점과제로 기록공동체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. 그렇지만 두 개정안 모두 어디에서도 현재까지 정리된 조문을 찾아볼 수 없다. 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(안)’ 의 경우 5월 14일, 5월 16일 양일간 개최된 설명회 이후 심의가 이루어지는 오늘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공유되지 않고 있다. 특히 ‘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(안)’ 은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는지 기록공동체에 공유된 바 없다. 대통령기록관리체계는 기록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영역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록관리체계와 커다란 관련을 갖고 있다. 이런 중요성을 감안할 때 폭넓은 의사소통은 더욱 중요하다.

---

보도자료에서 언급하듯이 위원회 누리집을 만들어 위원 명단은 물론 회의 진행 절차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과 기록공동체와 소통하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. 우선 이번회의에 상정된 두 개 법률개정안부터 즉시 공개해야 한다.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오늘 국가기록원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제47회 회의에 상정된 두 개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다. 이들이 공개되어 법률개정안에 대한 더욱 활발한 소통과 이에 기반한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.

2018년 6월 26일

**한국기록전문가협회**